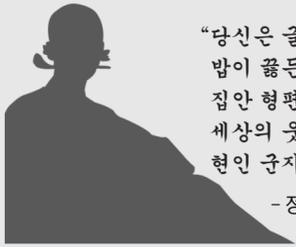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 '역사 속의 가족 편지'

▶7월 6일까지 기획전시실

1375년 나주에 유배 온 정도전 가족의 편지



"당신은 글을 부지런히 읽으시느라 밤이 끊든 죽이 끊든 간섭하지 않아 집안 형편은 한 섬의 곡식도 없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지요 현인 군자도 진실로 이리합니까?"

- 정도전 부인이 정도전에게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온당하오 그대는 집을 근심하고 나는 나라를 근심하는 것 외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소? 각각 그 직분만 다할 뿐이로오"

- 정도전이 부인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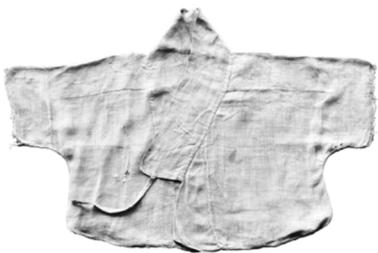


정도전의 편지 '修身齊家' 보다 '治國平天下'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이·성혼·정약용·김정희·초의 등 조선 사대부들의 편지 모아 한글로 번역 쉽게 읽을 수 있게



'원이 엄마의 편지'로 알려진 안동 이응태 무덤에서 출토된 '동자 옷'



율곡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이 35년 동안 주고 받은 편지 모음집 '삼현수간'(보물 제1415호).

시된다.

전시는 '옛 편지, 간찰', '정지와 학문을 논한, 사대부의 편지', '존경과 우정을 담은, 벗의 편지', '따뜻한 사랑을 품은 가족의 편지', '진심의 연결고리, 우리의 편지' 등 모두 5부로 구성됐다. 특히 편지와 문집의 내용을 일부 발췌, 한글로 번역해 누구나 쉽게 당시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조선 전기의 대학자 율곡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 등 세 사람의 유학자들이 35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 모음집 '삼현수간'(보물 제1415호)도 만날 수 있다. 삼현수간은 서로의 우정과 학문을 성장시킨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기록이다.

'옛 편지, 간찰' '사대부의 편지' '벗의 편지' '가족의 편지' '우리의 편지' 5부로 구성해 전시

성혼은 이이가 세상을 떠나자, 무덤 앞에서 송익필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지난달 그믐날에 율곡 묘에 가서 곡을 했습니다. 목은 풀과 차가운 안개만이 세상과 아득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율곡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커다란 자연 조화 속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중략) 제가 그 아래에 시를 짓기를, '세태는 사람을 따라 더욱 심해지고, 격정스러운 마음은 늙을수록 다시 새로워지네. 형이 이 시를 짓고 세상을 떠나, 내가 나중에 읽고 슬퍼하게 될 줄 어찌 알았으랴'라고 했습니다. 구봉 형도 이 묘소에 와서 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훗날 다시 한 번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무덤 앞에서겠지요."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과 초의선사의 인연을 알 수 있는 시도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된 뒤 쓴 '경인년 제석에 여러 벗들과 함께 운자를 각자 정하여 짓다-일곱번째'에서는 초의선사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산 아래 흰 대시립 쓸쓸한 집에서/ 신 막걸리 익힌 우유에 돌아갈 줄 모르네/ 시인들이 모두 종이 왔다고 좋아했는데/ 만나고 보니 남쪽에서 온 한 초의로세."

초의선사와 완당 김정희는 동갑내기로 편지를 통해 40년 동안 우정을 쌓았다. 둘 사이에는 '차(茶)'가 있었다. 추사체의 창시자로 유명한 김정희는 지독한 차 애호가였고, 초의는 조선 제일의 차를 만든 사람이었다. 초의는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되었을 때 차를 보내줬고, 김정희는 답례로 직접 글을 써 보내주곤 했다.

"병중에 연거푸 스님의 편지를 보니, 한결같이 해명(慧命)을 이어주는 신부(神符)라 하겠소. 정수리를 적 서주는 감로라 한을 어찌 이보다 더하겠소. 보내주신 차는 병든 위장을 시원스레 낮게 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빼어 사무치오." 문의 061-330-782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해 5월 18일 옛 전남도청 앞 문화마루에서 열렸던 5·18민중항쟁 33주년 5월문화제 및 전국문학인대회 모습.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오월 광주, 미래의 안녕을 묻다

오월문화제·전국문학인대회 ... 17~30일 자유공원 등서 열려

세월호 참사는 많은 이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비극은 안녕하지 못한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34년 전, 오월 광주의 참극 또한 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각인시켰다. 한국전쟁과 더불어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비극으로 꼽히는 5·18 민중항쟁은 진실에 재갈을 물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5·18 34주년을 맞아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월광주를 기념하고 안녕을 묻는 행사가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 주최로 17일부터 30일까지 5·18 자유공원을 비롯 국립 5·18 국립묘지 일원 등에서 열린다.

첫날 17일(오후 2시)에는 5·18자유공원 내 자유관에서 오월문화제 및 전국문학인대회가 개최된다. '기억과 현재, 미래의 안녕을 묻다' 주제로 18일 낮12시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오월문화포럼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관서 시인의 사회로 개최되는 오월문학포럼(오후 3시)에서는 전국 민족문학계의 현황 점검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열릴 계획이다. 이어 오월문화제 및 문학인대회(오후 5시)에서는 국도1호선 밴드가 '동학, 민주주의를 호명하다'를 주제로 공연을 하고, 한국작가회의 전국 지원 회원 발원 및 시·신문 낭송이 있을 계획이다. 또한 젊은작가포럼 강화진 시인의 사회로 디지털시와 PT강상도 예정돼 있다.

오월문학의 밤(밤 9시)에서는 도깨비마을 대표 김성범 아동문학가 사회로 전국 각 지회 소개 및 오월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8일에는 구 망월묘역 일원에서 '망월묘지에서 민주주의를 묻다' 주제로 현장시낭송회(11시~12시)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시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현장시낭송회는 오월문학의 선봉에 섰던 현장 시들을 중심으로 그날의 아픔과 송고한 정신을 기린다.

이밖에 국립 5·18국립묘지 내 광장에서는 회원들의 결계시화전(17~30일)이 열리고, 추모관 2층에서는 역대 5·18문학수상작 전시회(17~30일)도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회원·공방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국립광주박물관은 14~23일 박물관 회원과 박물관 공방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전통회화와 공예를 대표할 수 있는 민화(문자도)와 한지 공예를 배우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와 체험학습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회원은 회화적 배경 등 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제작과정인 야교포수·배경색 칠하기·초본(먹선뜨기)·작품 배접·체색 등 다양한 전통회화 기법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물관 공방에서는 종이한지, 천연염색한지 등 다양한 한지제작법과 문양을 만들어보고, 이를 활용한 생활 소품(염서·조명등·조명등·조각보·가리개 발) 등을 제작해본다.

박물관 공방은 6월3일부터 8월19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박물관 회원은 6월5일부터 8월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에 진행된다. 문의 062-570-706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생활게시판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Table with 8 columns and 4 rows of business listings including contact info and services.